



■  
**안병문**

성민병원 의료원장

---

남다른 투철한 박애정신으로 봉사활동  
타고난 성실함으로 매진해오고 있는 안 원장은  
병원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힘쓰겠다고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월 9일 열린 제49차 정기 총회 개최식에서 인천시병원회회장인 안병문 성민병원 의료원장에게 ‘중외박애상’을 수여했다. 안 의료원장의 이번 수상은 병원협회와 인천시병원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공헌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의료원장의 이번 수상에 대해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동안 그가 보여준 성실성과 근면성, 그리고 희생과 봉사 정신의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중외박애상’ 수상후보 추천서에도 잘 나와 있다. “안병문 의료원장은 희생과 봉사 정신에 입각해 환자의 아픔을 함께하는 투철한 박애정신과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인술을 펴 왔고, 바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지역주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의료인”이라는 추천의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추천서는 이어 “2004년부터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의료봉사활동을 벌여 왔으며, 인천 서구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 운영하며 생계비·의료비 후원사업을 통해 소외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와 왔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베풀고, 나누는’ 인술경영으로 주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됐다”고 밝혔다.



또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인천시병원회회장으로서 회원병원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렇듯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일을 해왔음에도 막상 ‘대한병원협회지 초대석에 모시고 싶다’는 요청을 했을 때 그는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런 데를 나가겠어요. 정말 좋은 분을 모셔야 협회지가 빛나지 않겠어요?”라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해 필자로 하여금 한 동안 진땀을 흘리게 했다. 그러나 필자의 몇 차례에 걸친 간곡한 요청에 못이겨 인터뷰에 응하고서도 좀처럼 쑥스러워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외박애상은 정말 좋은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닌 정말 좋은 분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다 제가 이 상을 받았으니 제 개인적으로야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상이 저로 하여금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면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안 의료원장은 “내 자신 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내가 속해 있는 병원계의 발전에 조그만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면서 “병원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한다.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어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의 아픔이 가시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실시이후 30년을 지나면서 재벌들까지 병원사업에 뛰어드는 등 대형병원들이 출현하여 전

체적으로 병원들의 규모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중소병원들 사이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 인력난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 인력난은 병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중소병원들은 이외에도 의사, 특히 최근들어 재활의학이나 영상의학 전문의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병원들은 선진외국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의료를 제공하면서도 이러한 심각한 인력난과 고질적인 정부의 저수가로 인한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은 도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많은 병원인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병원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 특히 지도자급 병원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직면한 병원계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말겠다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안 의료원장은 “병원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병원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타개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료수가 현실화, 잘못된 제도의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없이는 병원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되돌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계가 현재 안고 있는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고 앞으로 얼마동안 계속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병원인들의 의욕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그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원치 않는다면 병원들이 안정된 가운데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전제돼야 할 것이 병원이나 병원인들에 대한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의 전환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현재의 어려운 의료상황에서 의료의 질

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병원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인들의 이런 희생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 의료라는 배가 순항을 하느냐, 아니면 침몰하고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사회 그리고 병원계는 이 시기를 잘 인식하여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담 김성환) **KHA**

